

초등학교 고학년의 방과 후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 2009, 2019년 생활시간조사 비교*

박 정 민¹⁾

진 미 정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생활과학연구소

초등학생은 방과 후 시간을 통해 학교 일과 이후 시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간 자원의 사용도 구성 방식에 따라 주관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2009년과 2019년 초등 고학년 아동의 평일 시간사용을 비교하고 방과 후 시간사용 유형에 따른 시간 부족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초등 고학년 432명(2009년)과 521명(2019년) 평일 시간일지를 대상으로, ‘개인 유지,’ ‘학습,’ ‘교제,’ ‘여가,’ ‘이동’을 분류요인으로 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2009년에 비해 2019년 개인유지, 스포츠 및 레포츠, 게임, 전체 여가 시간은 증가하였으며, 학습, 문화활동 여가 시간은 감소하였다. 둘째, 방과 후 시간사용은 2009년 네 유형, 2019년에는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009년 방과 후 시간사용은 학습(56.6%), 여가(25.4%) 중심 집단과 교제 및 학습 집단(3.7%), 학습중심 고른분포(14.3%)로 분류되며, 2019년에는 학습(71.5%)과 여가(28.5%) 중심 집단만이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2009년에는 학습 집단에 비해 여가 집단과 학습중심 고른분포 집단이, 2019년에는 학습 집단에 비해 여가 집단이 시간부족감을 적게 느꼈다. 이 연구는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해 학습 시간의 감소와 여가 시간의 증가, 방과 후 시간사용 유형의 감소를 포착하였다. 또한 아동의 시간부족감을 고려해, 확대되는 온종일 돌봄 정책에서 여가의 비중을 늘리고, 방과 후 시간 활용을 더욱 고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주요어 : 초등학생, 방과 후 시간, 시간부족감, 생활시간조사, 잠재프로파일분석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생활과학연구소, 교수 (E-mail: mchin@s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생활시간연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아동이 특정 행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객관적인 시간을 수량화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할뿐더러, 개인별 특정 행동의 과소정도를 비교하여 일상생활의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또한 생활시간연구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생활실태와 특성을 이해하여 이들의 문제와 시간관리를 통한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실증연구 분야이다(김외숙, 이기영, 2015). 특히 아동의 시간사용은 아동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주며,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발달과 경험의 결과가 달라진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생활시간사용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그 가운데 방과 후 시간사용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이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시간 부족감에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시간사용의 변화와 그 의미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의 시간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 돌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며, 이 때 정서와 발달 경험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생활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Ben-Arieh & Ofir, 2002). 이 시기 아동의 시

간사용에서는 그들이 생애과정에서 표현하는 개인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Shanahan & Flaherty, 2001).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돌봄의 측면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과도기를 경험하는 시기로 다양한 형태의 적응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이 필요하지만(정연옥, 2010),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비해 직접적인 돌봄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기존 아동돌봄 지원 정책은 주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모 모두 근로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경우 돌봄의 대상으로 주목받기 어려우며, 초등학교 고학년은 어느 정도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들이 방과 후 시간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돌봄이 이루어지는지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정춘식, 2014). 그러나 고학년의 초등학교도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돌봄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21),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또한 공적 돌봄 시스템 내에서 정책의 대상으로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간사용 연구가 중요함에도, 초등학교생의 시간사용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다른 연령대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많지 않다. 초, 중, 고, 대학생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오만석의 연구(2010)는 1999년과 2004년을 비교함으로써 사교육이 초등교육으로 이동하였으며, 봉사활동 시간이 특히 적고, 여가의 시간이 주로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 등의 특정 활동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외숙(2017)은 10~18세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필수생활시간(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 개인관리), 의무생활시간(노동, 학습, 학교 수업, 학교 외 수업, 가사노동), 여가시간(참여봉사, 교제, 미디어, 종교, 문화, 스포츠, 기타 여가)을 2004년과 2014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2004년에 비해 2014년 필수생활시간은 증가한 반면 의무생활시간은 감소하였고, 여가의 경우 교제시간만 평일에 있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2009년과 2019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시간사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시간사용은 2009년과 2019년 사이 여러 사회적, 정책적 맥락 속에서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 토요일휴업제가 폐지되고 주 5일제 수업이 시작되어 초등학생의 요일별 수업 시수에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9년 87.4%에서 2019년 83.5%로 감소하였고, 사교육 참여 시간은 2009년 주당 평균 8.6시간에서 2019년 주당 평균 6.8시간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09, 2019). 이외에도 2012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김윤희, 2018), 미디어를 활용하는 초등학생의 여가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온종일 돌봄 정책과 함께 초등학교 고학년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본격화되었다(노성향, 2012). 2004년을 기점으로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을 권장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며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었고, 이후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각각에서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사업을 분절적으로 추진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은 주로 맞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취약계층 4~6학년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대상 또한 분절적인 결과를 낳았다. 한편 2018년 ‘온종일 돌봄 정책’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방과 후 돌봄의 대상을 늘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생 1, 2학년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초등돌봄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였다. 온종일 돌봄 정책은 초등돌봄의 대상을 고학년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교육부, 2018). 이러한 정책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전반적인 시간과 방과 후의 시간의 사용은 2009년과 2019년의 10년 사이 여러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이 연구에서는 방과 후 시간의 변화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 정규 수업은 대부분 40분의 수업과 10분의 쉬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 수업일과가 주로 5교시 혹은 6교시에 종료된다. 학교에서 보내는 일률적인 시간과 달리, 방과 후 시간사용은 초등학생의 생활수준, 주변 환경, 부모의 관심, 초등학생의 요구 등의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정송, 2005). 부모의 학력,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 구조에 따라서도 방과 후 학습, 독서, TV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의 시간사용이 달라질 수 있다(박민자, 손문금, 2007; 송유진, 2013; 진미정, 2008).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시간을 오후 3

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의 시간대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 일과는 평균적으로 14시 40분에 마치며, 부모의 평균 퇴근 시간은 19시 13분이다(정해련, 2016). 이 시간대 방과 후 시간은 초등학교 생 본인의 의사 이외에도 어머니 취업여부 등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또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또한 돌봄의 수요가 높은 시간대로(여성가족부, 2021), 이 시간대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영역에 편중된 불균형적 시간사용은 다른 영역에서의 시간사용을 줄이게 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장애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아동은 과도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건전한 발달에 필수적인 수면과 운동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며(홍혜영, 김재철, 2021), 이러한 학습시간 편중은 여타 다른 활동에 시간부족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강인자, 김혜연, 2005; 김외숙, 2017; 박민자, 손문금, 2007). 시간부족감이란 필요로 하는 시간에 비해 실제 시간이 모자란다고 인식하는 심리상태이다(박은정, 이성림, 2013). 김외숙(2017)에 따르면 개인의 시간사용은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인식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각 활동별 시간사용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동시에 아동이 본인의 시간사용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시간부족감은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비롯한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시간부족감은 우울, 불

안,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Gunthorpe & Lyons, 2004; Roxburgh, 2004; Strazdins, Welsh, Korda, Broom, & Paolucci, 2016; Zuzanek, 2004). 시간부족감은 스스로 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자율성이 결여되거나 시간이 분절적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59.4%가 시간부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중 아동과 청소년은 63.8%가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다(김외숙, 2017). 아동 청소년의 시간부족감은 전체 국민 평균에 비해 더욱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고 행복도가 낮은 우리나라 특성상(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분배하며 사용하는 것이 건전한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시간부족감에 주목한 선행연구는 주로 맞벌이부부, 취업자,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주목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이 방과 후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의 시간사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아동중심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방과 후 시간사용에 대해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고학년 초등학생 내에서도 유사한 시간사용의 특성을 가진 집단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사전에 정의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는 변수중심적 접근(variable centered approach)에서 벗어나, 사람중심적 접근(person centered approach)을 통해 유사한 특성을 갖는 개인들의 집단을 자연발생

적으로 탐색하여 규정할 수 있다(Laursen & Hoff, 2006). 즉, 유형화 연구는 집단이 이질적이라고 가정하며, 유사한 특성은 같은 집단, 다른 특성은 다른 집단으로 나누기 때문에 집단의 다양성을 드러내기 유용한 방법론이다(Muthen, 2004; Spurk, Hirschi, Wang, Valero, & Kauffeld, 2020). 또한 시간사용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개인의 다양한 시간사용 패턴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최하영, 2022),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시간사용 다양한 패턴을 드러내고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초등학교 고학년의 전반적 시간과 방과 후 시간은 2009년과 2019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고학년 방과 후 시간 사용 잠재유형은 2009년과 2019년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고학년의 방과 후 시간사용 유형에 따라 시간부족감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2009년과 201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대 자료이다.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1999년부터 5년을 주기로 실시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24시간 동안의 시간 활용 현황 및 의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통계청, 2019).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의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이며, 한 사람의 응답자가 서로 다른 두 요일에 시간일지를 작성한다. 시간일지는 하루 24간에 대해 10분 간격으로 행위, 함께한 사람, 장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09년	2019년
		<i>N</i> (%)	<i>N</i> (%)
성별	남	237 (54.9)	263 (50.5)
	여	195 (45.1)	258 (49.5)
만 연령	10세	175 (40.5)	189 (36.3)
	11세	171 (39.6)	205 (39.4)
	12세	83 (19.2)	124 (23.8)
	13세	2 (0.5)	3 (0.6)
	14세	1 (0.2)	0 (0.0)
전체		432	521

소를 조사 대상이 직접 기입하며, 이 외에도 질문지를 통해 작성한 날의 건강상태, 시간사용 만족도, 시간부족감 등을 함께 조사한다. 또한 데이터는 코딩방법에 따라 시간량, 시간대, 함께 한 사람 데이터로 구분하여 제공되는데, 이 연구는 시간대별 활동이 구분되어 있는 시간대 자료를 활용하며 방과 후 시간에 대해서는 오후 3시부터 7시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날보다 응답 요령에 익숙해진 둘째 날 시간일지가 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된다는 점을 고려해(손애리, 2000), 평일 둘째 날의 시간일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는 432명(남 54.9%, 여 45.1%)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521명(남 50.5%, 여 49.5%)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시간사용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시간사용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행동코드는 개인유지, 학습, 교제, 여가, 이동 다섯 가지이다. 방과 후 시간사용 유형 또한 개인유지, 학습, 교제, 여가, 이동 다섯 가지가 분류 요인으로 사용되었다.

개인유지 항목은 수면, 식사 및 간식 섭취, 개인건강관리,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의 중분류 항목들을 포함한다. 수면에는 ‘수면’, ‘잠 못 이룸’, 식사 및 간식 섭취에는 ‘식사하기’,

‘간식 및 음료 섭취’, 개인건강관리에는 ‘자기 치료’, ‘아파서 쉬’, ‘의료서비스 받기’, 그리고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에는 ‘개인위생’, ‘외모 관리’,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기타 개인 유지’의 소분류 항목들이 포함된다.

학습 항목의 경우, 학교 학습, 사교육 학습, 스스로 학습으로 나누어진다. 학교활동에는 ‘학교 수업’, ‘학교 수업 간 휴식’, ‘학교 자율 학습’, ‘학교 행사’, ‘기타 학교활동’, 학교활동 외 학습의 경우 ‘학원 수강’, ‘방송 및 온라인 강의 수강’, ‘스스로 학습’, ‘기타 학교활동 외 학습’의 소분류 항목들이 포함된다.

교제에는 중분류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대면교제’, ‘화상 및 음성교제’, ‘문자 및 메일교제’, ‘사회관계망을 통한 교제’, ‘기타 교제 관련 활동’의 소분류 항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여가 항목에는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문화 및 관광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게임이 포함된다. 이 때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활동에는 ‘책 읽기’, ‘신문 보기’, ‘잡지 보기’, ‘실시간 방송 시청’, ‘비디오 시청’, ‘실시간 라디오 방송 듣기’, ‘음원 음반 듣기’, ‘인터넷 정보검색’, ‘기타 미디어 관련 여가활동’이 포함되며, 문화 및 관광활동에는 ‘영화 관람’, ‘연극 및 콘서트 등 공연 관람’, ‘전시관 및 박물관 관람’, ‘관광 및 드라이브’, ‘기타 문화 및 관광활동’이 포함된다. 스포츠 및 레포츠 항목의 경우에는 ‘걷기 및 산책’, ‘달리기 및 조깅’, ‘등산’, ‘자전거 및 인라인’, ‘개인 운동’, ‘구기 운동’, ‘낚시 및 사냥’, ‘기타 스포츠 및 레포츠’, 게임 항목에는 ‘집단게임 및 놀이’, ‘온라인 및 PC 게임’, ‘모바일 게임’,

‘기타 게임’이 포함된다.

시간부족감

종속변수로 살펴본 시간부족감은 ‘귀하는 평소 시간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의 1문항에 대해, 4점 척도(1점: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 4점: 항상 여유가 있다고 느낌)의 응답 범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값이 클수록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역코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9년과 2019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전반적인 시간과 방과 후 시간사용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사용 항목에 따른 시간량을 기술통계로 제시하였다. 또한 2009년과 2019년 각 항목의 시간사용량을 비교하고자 t -test를 활용하여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방과 후 시간사용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2009년과 2019년에 대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방과 후 시간사용 응답 양상에 따라 적합한 잠재집단 수를 도출하고, 각 잠재집단의 시간사용 특성을 제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보지수(AIC, BIC, SABIC), 분류의 질(entropy), 모형비교검정(LMR-LRT, BLRT)의 통계적 기준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잠재집단에 대해서는 잠재집단의 분류에 따른 결과변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분류오류를 고려한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

류에 공변인의 영향을 통제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Vermunt, 2010). 결과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DU3STEP 보조변수(auxiliary)를 사용하였다. DU3STEP 방법이란 모형에 결과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프로파일 분류가 변화하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결과변인에서의 차이를 카이제곱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분석 방법이다(김은석, 송경희, 2019). 모든 분석에는 Mplus 8.8과 STATA SE 17이 사용되었다.

III. 결과 및 해석

1. 2009년과 2019년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간사용 비교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시간사용은 24시간 전체에 대한 전반적 시간사용과 오후 3-7시의 시간대만을 선택하여 방과 후 시간사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반적 시간사용과 방과 후 시간사용 모두 표 2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개인유지 시간은 수면, 식사, 건강관리, 외모관리의 측면에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전반적 시간사용은 2009년 679.4분에서 2019년 725.3분으로, 방과 후 시간사용은 26.5분에서 35.6분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학습 시간(학교, 사교육, 스스로 학습)은 전반적으로 2009년 469.9분에서 2019년 363.9분으로 감소하였으며, 방과 후에는 117.5분에서 85.6분으로 감소하였다. 교제 시간은 전반적 시간에서는 48.1분에서 40분으로 감소하였으나, 방과 후 시간에서는 변화가 유의하지 않

표 2. 2009년과 2019년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간사용 (단위: 분)

	전반적 시간 (24시간)			방과 후 시간 (오후 3-7시)		
	2009년	2019년	t-test	2009년	2019년	t-test
	M (SE)	M (SE)		M (SE)	M (SE)	
개인유지	679.4 (55.1)	725.3 (70.3)	-11.1 ***	26.5 (19.7)	35.6 (28.2)	-5.7 ***
학습	469.9 (91.6)	363.9 (122.7)	14.9 ***	117.5 (52.1)	85.6 (56.7)	8.9 ***
교제	48.1 (34.4)	40.0 (37.5)	3.5 ***	7.0 (14.5)	6.6 (16.1)	0.4
이동	78.4 (35.8)	77.8 (43.5)	0.2	36.3 (20.9)	34.1 (22.9)	1.6
미디어 활용	66.5 (57.0)	82.3 (76.7)	-3.5 ***	19.3 (31.4)	22.8 (38.4)	-1.5
문화 활동	20.5 (30.5)	2.1 (15.0)	12.2 ***	3.9 (12.7)	0.7 (7.2)	4.8 ***
여가 스포츠·레포츠	13.9 (32.8)	18.6 (40.8)	-2.0 *	4.8 (21.0)	8.5 (27.0)	-2.3 *
게임	50.3 (53.3)	79.5 (78.0)	-6.6 ***	19.6 (34.8)	26.8 (40.6)	-2.9 **
여가 전체	151.1 (86.1)	182.4 (110.6)	-4.8 ***	47.6 (49.8)	58.8 (56.8)	-3.2 **
기타	13.0 (23.1)	50.6 (55.9)	-13.1 ***	5.1 (15.0)	19.2 (32.1)	-8.4 ***
전체	1440			24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왔으며 이동 시간의 경우에도 2009년과 2019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가 시간의 경우 여가의 종류에 따라 그 변화에 차이가 나타났다.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 활동은 전반적으로 2009년에 비해 2019년 증가하였으나, 방과 후 시간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문화 활동 시간은 2009년에 비해 2019년 모두 감소하였는데, 전반적 시간에서는 20.5분에서 2.1분으로, 방과 후 시간에서는 3.9분에서 0.7분으로 감소하였다. 스포츠 및 레포츠 활동의 시간은 전반적인 시간과 방과 후 시간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여가 시간의 총합 또한 전반적인 시간과 방과 후 시간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2. 2009년과 2019년 방과 후 시간사용 유형

2009년과 2019년 방과 후 시간사용의 잠재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유형의 개수를 늘려가며 정보지수, 분류의 질, 그리고 모형비교 검증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최종적인 2009년과 2019년의 방과 후 시간사용 잠재유형의 수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AIC, BIC, SABIC는 모두 유형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그 수가 작아졌고 Entropy가 모두 0.8 이상으로 좋은 모형(Clark & Muthén, 2009)이지만, 잠재유형이 5개일 때 LMR LRT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또한 정보지수가 유형의 개수 증가에

표 3. 2009년, 2019년 방과 후 시간사용 잠재유형의 수

연도	유형 개수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검정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 BLRT
2009년	1개	20445.03	20485.71	20453.98			
	2개	20061.90	20126.99	20076.22	0.87	0.00	0.00
	3개	19801.58	19891.08	19821.27	0.90	0.02	0.00
	4개	19606.89	19720.81	19631.95	0.94	0.00	0.00
	5개	19512.69	19651.02	19543.12	0.93	0.10	0.00
2019년	1개	25464.36	25506.91	25475.17			
	2개	25098.00	25166.09	25115.30	0.85	0.00	0.00
	3개	24775.12	24868.75	24798.91	0.90	0.18	0.00

따라 감소했으며 분류의 질 또한 모두 0.8 이상이였음에도, 잠재 유형이 3개일 때 LMR LRT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방과 후 시간사용에 대한 잠재유형은 2009년 4개, 2019년에는 2개인 것으로 최종 모형을 결정하였다.

2009년(그림 1 참조)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방과 후 시간사용 유형은 학습중심 집단이 5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여가중심 집단이 25.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중심 집단에

비해서는 학습시간이 낮고, 여가중심 집단에 비해서는 학습시간이 높은 교제 및 학습 집단과 학습중심 고른분포 집단 또한 도출되었다. 교제 및 학습 집단의 경우 3.7%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음에도, 네 집단 가운데 교제 시간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학습중심 고른분포 집단의 경우에는 14.3%의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 집단은 학습시간이 학습중심 집단 다음으로 높지만 학습중심 집단에 비해 여가 시간과 교제 시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방과 후 시간동안 학습을 중심으로 하되,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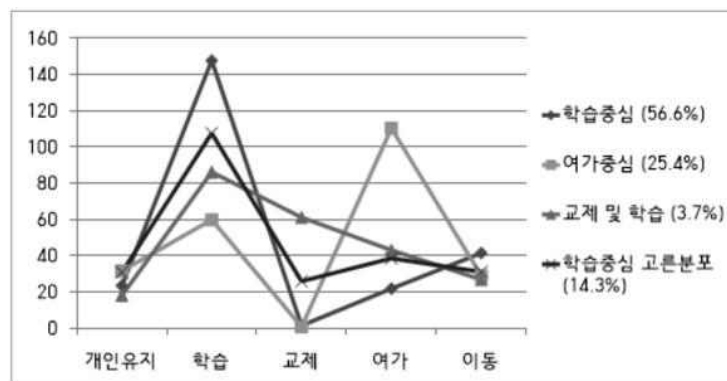


그림 1. 2009년 방과 후 시간사용 잠재프로파일 형태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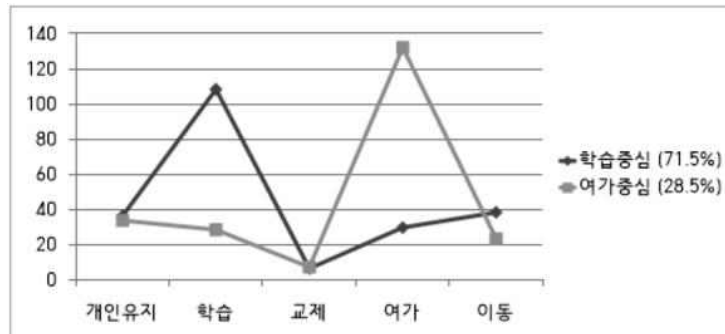


그림 2. 2019년 방과 후 시간사용 잠재프로파일 형태 (단위: 분)

가와 교제에 모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집단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잠재유형의 개수가 2개로 나타났던 2019년(그림 2 참조)은 시간사용 유형이 학습중심 집단(71.5%)와 여가중심 집단(28.5%)로 분류되었다.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 학습중심 집단의 학습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지만, 그 비율이 56.6%에서 71.5%로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9년의 여가중심 집단의 경우에도 2009년의 여가중심 집단에 비해 학습 시간이 더욱 짧으며, 반면에 여가 시간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2019년에는 방과 후 시간 동안 학습에만 편중된 시간은 줄어들었음에도, 70%가 넘는 대부분의 아동이 학습중심으로 방과 후 시간을 구성하며 방과 후 시간사용의 다양성은 더욱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9년과 2019년 모두 개인유지 시간에는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2009년과 2019년 모두 학습중심 집단의 이동시간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학습중심 집단의 여가시간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 방과 후 시간사용 유형이 아동의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한 2009년과 2019년 각각의 방과 후 시간사용 유형이 아동의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방과 후 시간사용 잠재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2009년에 비해 2019년의 시간부족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학습중심 집

표 4. 2009년, 2019년 방과 후 시간사용 잠재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학습중심 집단	여가중심 집단	교제 및 학습 집단	학습중심 고른분포
	<i>M (SE)</i>	<i>M (SE)</i>	<i>M (SE)</i>	<i>M (SE)</i>
2009년	2.89(0.05)	2.48(0.08)	2.56(0.28)	2.68(0.11)
2019년	2.46(0.05)	2.07(0.08)		

표 5. 2009년, 2019년 방과 후 시간사용 잠재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의 차이 (Chi-square)

	기준: A			기준: B		기준: C	Overall test
	B	C	D	C	D	D	
2009년	15.11***	1.31	2.89†	0.08	1.98	0.15	16.24* (B, D < A)
2019년	16.00***						16.00*** (B < A)

주. A: 학습중심 집단, B: 여가중심 집단, C: 교제 및 학습 집단, D: 학습중심 고른분포 집단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단, 학습중심 고른분포 집단, 교제 및 학습 집단, 여가중심 집단 순서로 시간부족감이 높았고, 2019년에는 학습중심 집단, 여가중심 집단 순서로 시간부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DU3STEP 방법을 통해 방과 후 시간사용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검증하였다(표 5 참조). 분석 결과, 2009년과 2019년 모두 잠재유형에 따라 아동의 시간부족감에 차이가 유의하였다. 먼저 2009년과 2019년 모두 학습중심 집단이 여가중심 집단에 비해 시간부족감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2009년에는 여가중심 집단과 학습중심 고른분포 집단 모두가 학습중심 집단에 비해 시간부족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학습중심 고른분포 집단은 학습중심 집단에 비해 1% 유의수준에서 시간부족감에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하였지만, 여가중심 집단과 학습중심 고른분포 집단 사이에 시간부족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9년과 2019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대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

동의 시간사용을 비교하였다. 시간사용에는 개인유지, 학습, 교제, 여가, 이동의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분류요인으로 한 방과 후 시간사용 유형을 확인하고자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2009년과 2019년 각각에 대해 방과 후 시간사용의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시간부족감이 어떻게 다른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9년에 비해 2019년 방과 후 학업 시간은 감소한 반면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2012년 3월부터 토요일 수업제가 폐지되고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초등학생의 요일별 수업 시수가 증가하였는데(정해련, 2016),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라는 동일한 방과 후 시간에서 2009년에 비해 2019년 학업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주 5일 수업제는 연간 수업일수를 205일에서 190일로 줄였으나, 연간 수업시간은 동일해 학생들의 평일 수업이 더욱 늦게 끝나는 변화를 수반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9년 87.4%에서 2019년 83.5%로 변화하여 방과 후 사교육이 일정정도 줄어들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은 학교 수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사교육의 비중은 낮아져 평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이 결과적으

로 동일한 방과 후 시간에 대해 초등학생의 학업 시간을 감소시킨 것이다. 한편, 2019년 기준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의무 수업시간은 655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799시간(최고 덴마크 1,051시간)에 비해 짧다(OECD, 2019). 근로시간이 긴 한국 사회에서 OECD 국가에 비해 짧은 연간 의무 수업시간은 학부모가 일과 자녀 돌봄을 양립하기 어렵게 만들며(김희삼, 2018),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긴 방과 후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국가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난 변화에 대해서는 여가 시간 중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의 시간사용이 증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에 비해 2019년 초등학생의 문화 및 관광활동은 감소하였음에도 스포츠 및 레포츠,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와 게임시간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0년 사이 초등학생의 여가가 영화나 공연 등의 관람과 관광 위주의 활동에서 읽기(책, 신문, 잡지)와 실시간 매체(실시간 방송, 실시간 라디오 방송)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교제 시간이 줄어들어 사회적인 교류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2012년을 기점으로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크게 증가한 변화(김윤희, 2018)에 따라 아동이 과거에 비해 교제와 문화활동을 즐기기도 온라인과 모바일 등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 방과 후 시간사용의 유형은 그 다양성이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학습중심, 여가중심의 잠재유형과 더불어, 교제 및 학습 집단과 학습중심 고른 분포 집단이 존재한 반면, 2019년에는 단순히 학업 혹은 여가 시간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방과 후 시간사용이 분류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에 비해 2019년 초등학생의 학업 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여가 시간은 더욱 늘어나 지난 10년 사이 초등학생이 학업 이외에 다른 영역에 균형적으로 시간 자원을 분배하게 되었음에도, 방과 후 시간사용의 양상이 더욱 획일화 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비해 2019년의 학습중심 집단과 여가중심 집단 모두 학습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학습중심 집단이 71.5%로 크게 증가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방과 후에 학업에만 편중된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더욱 많은 초등학생이 방과 후 시간에 학업을 중심으로 시간을 구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시간사용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의 경우, 학습중심 집단에 비해 여가중심 집단이, 학습중심 집단에 비해 학습중심 고른 시간 분포 집단이 시간부족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정된 시간 속 학습에 편중된 시간사용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시간확보를 어렵게 하며 시간부족감은 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에 ‘시간사용 만족’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봉주, 유민상의 연구결과(2021)에 따라 앞으로 학업을 중심으로 방과 후 시간을 구성하는 비율은 높아짐에도 그 가운데 여가와 교제 시간을 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가 활동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비단 시간부족감만 있지 않다. 여가는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행복의 주요 원천이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이다(손진희, 김지민, 2020). 특히 아동 청소년은 각자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우울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 경쟁, 학업의 부담감, 성적 스트레스 등 학업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다(이미은, 안권순, 2010; 이영익, 2007). 또한 2009년에 비해 2019년의 학습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중심 집단의 비율이 더욱 더 증가였으며, 여전히 해당 집단의 시간부족감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습은 더욱 더 보편화되며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 학습중심 집단의 비율이 앞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이 학습에 편중된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고 아동이 교제와 여가를 통해 자신의 시간사용을 더욱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09년과 2019년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간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과 후 시간사용에 따라 아동이 시간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확대되는 온종일 돌봄 정책에 서 방과 후 시간을 학습중심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여가의 비중을 늘리며, 학습, 여가, 교제 등의 시간 활용을 고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이는 방과 후 돌봄 정책이 학업 보충을 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서적 안정감과 정서 발달을 지지해야 한다는 정춘식의 연구(2014)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 방과 후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42.1%) 다음으로 학원(37.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습 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대부분 가구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로 학습중심의 오후 시간대 돌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학습중심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이재희, 김대옥의 연구(2020)는 방과 후 돌봄이 교육의 기능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제한함으로써 사교육의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하지만 방과 후 시간을 학습 및 교육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다양한 교제 및 참여 활동이나 여가 및 문화생활과의 균형 있는 경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방과 후를 교육 위주로 구성하는 것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활성화하여 학력과 학습 위주의 한국 교육 체계 속에서 방과 후 시간을 통해 적절한 여유와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에게 방과 후 시간이 갖는 의미는 비단 국가의 정책이나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장수정, 송다영, 백경훈의 연구(2019)에 따르면, 아동이 보내는 방과 후 시간에는 부모의 영향 또한 크게 작용한다. 실제로 부모가 아동의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에 따라 방과 후 시간에 학원을 보내거나, 실내에 주로 있도록 하는 경우가 결정되었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신호정,

2016; 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2017). 이는 부모가 갖는 교육관이나 목적성에 따라 시간에 대한 아동의 선택권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며(김선희, 2015), 아동의 방과 후 시간 활용도 부모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경화, 2013; 신호정, 2016).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다채로운 방과 후 시간 활용을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아동의 스스로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 학교, 부모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시간 사용이 2009년과 2019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개인유지, 학습, 교제, 여가, 이동의 ‘주행동’을 살펴보았으나, 그 시간 아동이 ‘누구와’, ‘어디에서’ 해당 시간을 보낸 것인지 그 변화의 양상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김지희(2012)에 따르면, 방과 후 보호자가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학습에 비해 TV, DVD 시청 시간이 늘어나는 등 아동의 시간구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아동이 방과 후 시간을 누구와 함께 어떤 장소에서 보내는지 파악하고, 그 양상이 10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생의 시간사용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교하고 이를 유형화하였으나, 해당 유형을 통해서는 동일한 분류요인 내에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이 연구는 2009년에 비해 2019년 학업시간이 줄어들고, 학습 집단의 비율도 감소하였으며, 그들의 시간부족감도 감소하는 결과를 밝혔다. 하지만 줄어든 학업

관련 지표들이 사교육 시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학교 수업 시간의 변화 때문인 것인지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류요인 내 소분류 항목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그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인자, 김혜연 (2005).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시간 사용 및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4), 1-19.
- 교육부. (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세종: 교육부.
- 김경화 (2013). 학습공동체 참여 대학생의 집단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20(12), 315-335.
- 김동하 (2017). 학령기 아동의 게임 사용시간 변화궤적 분석: 잠재계층성장분석(LCGM)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8(2), 303-329. <https://doi.org/10.16999/kasws.2017.48.2.303>
- 김선희 (2015).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목적 논의: 공공성과 아동 자기결정의 자유에 근거하여. *한국초등교육*, 26(4), 515-535. <https://doi.org/10.20972/kjee.26.4.201512.515>
- 김외숙 (2017). 청소년의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의 변화: 2004년과 2014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4), 35-59. <https://doi.org/10.22626/jkfrma.2017.21.4.003>
- 김외숙, 이기영 (2015).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윤화 (2018).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

- 유 및 이용행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STAT Report, 18(20), 1-7.
- 김은석, 송경희 (2019).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 목표 잠재 프로파일: 발달적 영향 요인과 대학생활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2), 103-125.
<https://doi.org/10.35574/KJDP.2019.06.32.2.103>
- 김지희 (2012). 아동의 생활시간과 놀이시간 양태 연구: 방과 후 보호자 유무에 따른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50(8), 13-19.
<https://doi.org/10.6115/khea.2012.50.8.013>
- 김희삼 (2018. 2). 선생님, 벌써 세 시가 됐어요?.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11433&sel_year=2018&sel_month=02에서 2022년 7월 9일 인출
- 노성향 (2012).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및 요구. 인간발달연구, 19(3), 21-40.
- 박민자, 손문금 (2007).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2), 93-120.
<https://doi.org/10.21478/family.19.2.200706.004>
- 박은정, 이성림 (201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가정과 삶의질연구, 31(4), 97-111.
<https://doi.org/10.7466/JKHMA.2013.31.4.097>
- 박현정, 손윤희, 김전옥 (2017).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과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2), 197-224.
<https://doi.org/10.14816/sky.2017.28.2.197>
- 손애리 (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손진희, 김지민 (2020).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71-94.
<https://doi.org/10.36697/skya.2020.6.4.71>
- 송유진 (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5(3), 31-53.
<https://doi.org/10.21478/family.25.3.201309.002>
- 신호정 (2016).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시간이 가지는 의미. 아동중심실천연구, 13(2), 25-43.
- 여성가족부. (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정책연구소.
- 오만석 (2010). 한국 학생들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0(4), 299-330.
- 이미은, 안권순 (2010). 주5일 수업제가 청소년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12), 309-341.
- 이봉주, 유민상 (2021). 35개국 비교를 통해 본 아시아 속 한국 아동의 삶의 질. 2021 한국 아동의 삶의 질 국제심포지엄, 4-11.
- 이영익 (2007). 중·고등학생의 여가활동 참가가 시험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9, 593-604.
- 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희, 김대옥 (2020). 어머니의 취업과 일-양육 갈등이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4(3), 263-283.
<https://doi.org/10.32349/ECERR.2020.6.24.3.263>
- 장수정, 송다영, 백경훈 (2019). 초등돌봄 정책

- 에 대한 비판적 분석: 공동육아 방과후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2), 251-287.
<https://doi.org/10.47042/ACSW.2019.02.62.251>
- 정 송 (2005).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여가시간 활용 실태 분석. 아동중심실천연구, 2(1), 53-72.
- 정연옥 (201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부모양육 행동과 부적응도식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315-333.
- 정춘식 (2014).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자기보호 경험이 이후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해련 (2016). 가구소득에 따른 자기보호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시간 사용 양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정 (2008).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0(3), 187-211.
<https://doi.org/10.21478/family.20.3.200809.007>
- 최하영 (2022). 일·생활 중첩시간을 고려한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과 일·생활 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9). 2019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9). 2019년 생활시간조사. 대전: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아동종합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연구원.
- 홍혜영, 김재철 (2021).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시간 사용의 잠재전이분석과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8(1), 417-441.
<https://doi.org/10.21509/KJYS.2021.01.28.1.417>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Ben-Arieh, A., & Ofir, A. (2002). Opinion, dialogue, review: Time for (more) time-use studies: Studying the daily activities of children. *Childhood*, 9(2), 225-248.
<https://doi.org/10.1177/0907568202009002805>
- Clark, S. L., & Muthén, B.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Unpublished paper). Retrieved July 9, 2022, from <http://www.statmodel.com/download/relatinglca.pdf>
- Gunthorpe, W., & Lyons, K. (2004). A predictive model of chronic time pressure in the Australian population: Implications for leisure research. *Leisure Sciences*, 26(2), 201-213.
<https://doi.org/10.1080/01490400490432127>
- Laursen, B., & Hoff, E. (2006).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pproaches to longitudinal data. *Merrill-Palmer Quarterly*, 52(3), 377-389.
<https://doi.org/10.1353/mpq.2006.0029>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345-368). Newbury Park, CA: Sage.
<https://doi.org/10.4135/9781412986311.n19>

- OECD. (2019). *How much time do students spend in the classroom?*. *Education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6ec208bd-en>
- Roxburgh, S. (2004). There just aren't enough hours in the day: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time pressu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5(2), 115-131.
<https://doi.org/10.1177/002214650404500201>
- Shanahan, M. J., & Flaherty, B. P. (2001). Dynamic patterns of time use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385-401.
<https://doi.org/10.1111/1467-8624.00285>
- Spurk, D., Hirschi, A., Wang, M., Valero, D., & Kauffeld, S. (2020). Latent profile analysis: A review and “how to” guide of its application within vocational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0, 103445.
<https://doi.org/10.1016/j.jvb.2020.103445>
- Strazdins, L., Welsh, J., Korda, R., Broom, D., & Paolucci, F. (2016). Not all hours are equal: Could time be a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38(1), 21-42.
<https://doi.org/10.1111/1467-9566.12300>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https://doi.org/10.1093/pan/mpq025>
- Zuzanek, J. (2004). Work, leisure, time-pressure and stress. In J. T. Haworth & A. J. Veal (Eds.), *Work and leisure* (pp. 137-158). London: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489321>

1 차원고접수 : 2022. 07. 10.

수정원고접수 : 2022. 11. 23.

최종게재결정 : 2022. 12. 27.

After-School Time Use and Time Poverty among Upper Elementary Students: A Comparison between 2009 and 2019 using Time Use Survey

Park, Jeongmin¹⁾

Chin, Meejung²⁾

¹⁾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eely plan their own schedule during after-school time. Perceived time poverty varies depending on the way they compose the same hours. This study compares the time use of upper elementary students in 2009 and 2019 and examines the difference in time poverty according to the type of after-school time use. Time Use Survey was administered on 432 (2009) and 521 (2019)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factors of “personal maintenance,” “learning,” “social activities,” “leisure,” and “moving”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Compared with 2009, personal maintenance and leisure increased, whereas learning and leisure decreased in 2019. After-school time use was classified into four and two types in 2009 and 2019, respectively. In 2009, after-school time was classified as “learning” (56.6%), “leisure” (25.4%), “social activities” (3.7%), and “learning-focused even time distribution” (14.3%). In 2019, only “learning” (71.5%) and “leisure” (28.5%), were present. In 2009, less time poverty was perceived for both “leisure” and “learning-focused even time distribution” than “learning.” In 2019, time poverty was perceived for “leisure” than “learning.” By comparing 2009 and 2019,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consider the time poverty of children an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leisure in after-school care policy in South Korea.

Key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ter-school time, time poverty, time use survey, latent profile analysis